

환상의 짝꿍, 환장의 웃음 - 파크골프 열풍을 품은 예능

렛츠고 파크골프:환장의 짝꿍

글. 이도학 OBS 사원



방송 | 금요일 밤 10시 40분

잘 치면 '환상', 못 치면 '환장'하는
짝꿍들의 파크골프 여행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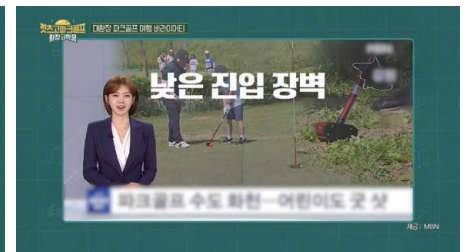
건강, 힐링 그리고 관계. '파크골프'라는 새로운 바람



요즘 중장년층의 여가 트렌드를 대표하는 세 단어이다. 이 세 가지를 모두 품은 운동이 바로 파크골프(Park Golf)이다. 단순한 경기이지만, 그 안에는 경쟁의 재미와 걷기의 힐링, 그리고 동료와의 교감이 공존한다. 전국의 공원과 강변마다 파크골프장이 늘어나며, 이제는 생활문화의 상징이 되었다. 인기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에는 중장년층 세대를 넘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게 되었으며 짧은 코스, 저렴한 이용료, 접근성 덕분에 파크골프는 불과 몇 년 사이 게이트볼을 잇는 국민 생활스포츠로 자리 잡았다.

한국파크골프협회에 따르면 2025년 현재 전국 파크골프장은 약 2,000곳, 등록 동호인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부담 없는 유산소 운동이자 사회적 교류의 장, 청년층에게는 새로운 여가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이처럼 '건강·힐링·관계'의 가치가 맞닿은 종목이기에, 방송 콘텐츠로서도 적합했다. OBS·MBN 공동 제작 예능 <렛츠고 파크골프: 환장의 짝꿍>은 이 흐름을 생생하게 담아낸 예능이다.



웃음과 경쟁, 그리고 힐링이 공존하는 '잔디 위의 버라이어티'



시즌 1의 첫 방송은 2023년 10월 22일 이뤄졌다. 2025년 1월 종영이 되었지만, 파크골프의 인기가 증가함에 힘을 얻어 시즌 2 <렛츠고 파크골프: 환장의 짝꿍>이 지난 8월 29일에 방영됐다. 이름처럼 환상의 짝꿍이 되면 환상적인 여행, 환장의 짝꿍이면 환장할 여행으로 이어지는 파크골프×여행 예능이다. 매회 출연자들은 파크골프 실력과 팀워크를 발휘해 경기를 치르고, 그 결과에 따라 '환상 코스'와 '환장 코스'로 나뉘어 여행을 떠난다.



OBS와 MBN이 공동으로 기획한 본 프로그램은 현실적이고 거침없는 입담과 중장년 공감대를 가진 메인MC 김구라를 중심으로 꾸밈없는 인간미와 허당 매력을 가진 김경민, 밝은 에너지를 가진 귀여운 막내 김지유, OBS 아나운서, 맑은 텐션과 유쾌한 리액션을 가진 박진아, MBN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는다. 여기에 윤택, 이승윤, 심형탁, 오지현, 박휘순, 오정태 등 개성 넘치는 게스트들이 출연해 각기 다른 케미스트리를 선보인다. 파크골프의 룰은 간단하지만, 경기에는 의외의 변수들이 많다. 짧은 거리임에도 공은 어디로 튈지 예측할 수 없고, 한 샷 한 샷마다 출연자들의 리액션은 폭소를 자아낸다. 이처럼 '생활 스포츠의 긴장감 + 예능의 웃음 + 여행의 여유'가 절묘하게 버무려진 구성이 프로그램의 매력 포인트다.



파크골프란 무엇인가, '공원에서 즐기는 골프'의 매력



파크골프를 보다 보니 문득 파크골프의 기원과 우리가 흔히 아는 골프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해져서 혹시 필자와 같은 궁금증을 가진 사람을 위해 간단하게 기원과 차이점을 적어보았다. 파크골프는 1983년 일본 홋카이도에서 '누구나 안전하고 쉽게 즐길 수 있는 골프'를 목표로 만들어졌다. 이러한 목표로 만들어진 만큼, 기존 골프보다 훨씬 간소하고 친환경적이다.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것은 1990~1992년경 일본을 통해 도입되었지만, 2004년~2009년 제도화되고 전국대회가 시작됐다. 본격 대중화된 것은 2015년부터 시작해서 코로나19 시기 각광받아 인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기존 골프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한눈에 보기 편하게 간략한 표로 준비해보았다.



골프와 파크골프 비교

항목	골프	파크골프
장비	14개 클럽	1개 클럽
경기장	6~7Km, 대규모 필드	500~1,000m, 공원형 코스
비용	수만~수십만 원	무료~저가
목적	기술·전략 중심	참여·교류 중심
이미지	엘리트 스포츠	생활 스포츠

이처럼, 파크골프는 '골프의 문턱을 낮춘 생활형 스포츠'로 평가받는다. 기술적 부담이 적고,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어 세대 융합의 운동으로도 주목받는다. 실제로 파크골프장은 중장년층, 시니어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함께 전 연령층이 어울려 라운드를 도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세대가 함께 웃는 예능, 파크골프가 만든 새로운 관계



파크골프의 진짜 힘은 세대 간의 연결이라고 생각한다. 10대부터 70대까지 모두가 같은 경기장에서 같은 룰로 겨룰 수 있다는 점은 드물기 때문이다. <렛츠고 파크골프: 환장의 짝꿍>은 이 세대 융합의 특성을 프로그램의 유머 코드로 승화시킨다.

젊은 출연자가 과감히 스윙하다가 실수하면 선배들이 웃으며 격려하고, 중장년 게스트가 '감각 샷'을 성공시키면 현장은 박수로 뒤덮인다. 그 안에는 도전, 배려, 그리고 웃음이 있다. 그 웃음은 파크골프의 본질이자, 방송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다. 이런 '세대 간의 공감과 격려'가 바로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감동 포인트라고 생각한다.

방송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경기의 결과가 아니라, 함께 걷고, 함께 웃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 메시지는 세대 간 ‘연결의 결핍’을 느끼던 시청자들에게 진한 여운을 남기고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방송,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스포츠’라는 화두를 던진다. <렛츠고 파크골프: 환장의 짝꿍>은 그 잔디 위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금 ‘함께 걷는 즐거움’을 떠올리게 하여 모든 세대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지역의 숨결을 담은 예능



OBS는 수도권 공영방송으로서 ‘지역 밀착형 콘텐츠’에 강점을 가진 방송사다. <렛츠고 파크골프> 또한 이 특성을 이어받아, 전국 각지의 파크골프장을 무대로 그 지역의 풍경과 문화를 함께 소개한다. 프로그램은 경기 자체보다 사람과 장소가 어우러지는 ‘현장감’에 집중한다. 경기 북부의 산책로, 강원도 화천의 숲, 경남 거제와 사천의 바다, 양산, 대구 달성 등 각 지역의 자연과 공공 체육시설이 어우러진 장면은 방송을 통해 ‘생활 속 공영성’을 구현한다. 또한 각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한 요리를 보여주고, 해당 지역의 볼거리와 놀거리를 보여줌으로써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지역을 알리는데 앞선다. OBS가 지상파로서 MBN과 손잡은 이번 기획은, 지역 기반 콘텐츠를 전국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는 공공성·지역성·오락성이 조화된 대표적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생활체육 예능의 새로운 가능성



<렛츠고 파크골프: 환장의 짝꿍>은 단순히 한 종목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트렌드 변화에 따라 전 연령을 연결해줄 수 있음을 반영한, ‘생활체육 예능’의 새로운 장르 실험이다. 이 프로그램의 성공은 향후 다른 종목들 - 예를 들어 게이트볼, 풋골프, 디스크골프, 노르딕워킹 등 - 로 확장될 가능성을 열었다. 즉, 스포츠 예능의 무게중심이 ‘프로 경기 중계’에서 ‘생활 속 참여형 콘텐츠’로 이동하고 있다.



OBS와 MBN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경쟁, 함께 웃을 수 있는 방송’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이는 단지 한 시즌짜리 예능이 아니라, 방송이 생활체육을 문화로 승화시키는 실험적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